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3월 20일
제1888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사순 감사송 2 : 참회)



사순 제3주일 (다해)

제 1 독서 탈출 3,1-8ㄱㄷ.13-15 |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화답송 시편 103(102)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서 1코린 10,1-6.10-12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루카 13,1-9 |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¹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²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³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⁴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⁵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⁶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⁷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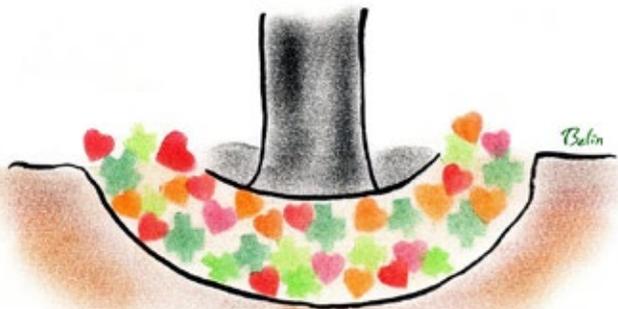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⁸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⁹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루카 13:8

바로로말 콘텐츠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의 중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루카 복음 12장에서 시작된 군중과 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와 연결되어 절정을 이룹니다. 특별히 깨어 기다리라는 종말론적 위기에 대한 경고(12,16-21.35-48 참조)는 화해(12,57-59 참조)와 회개에 대한 촉구(13,2-5 참조)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13,6-9 참조)를 통하여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갈릴래아 사람들에게 행한 빌라도의 잔혹한 행위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갈릴래아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일부 갈릴래아 사람들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래아 사람들이 갈릴래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 참혹한 운명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암에 있던 탑 아래 깔려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러 갑작스럽게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극적 사건을 통하여 아직 살아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12,20 참조).

누구든지 죽음에 갑작스럽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자신의 생명도 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회개로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정진만 안젤로 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주임신부님의
사순절 메시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찬미 예수님.

자연의 파괴로 세상속에 파고든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다시금 삶의 자리를 열어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는 하느님의 자리를 꼭 만들어 드리며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살이기를 청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주교 시노드를 통해 교회의 쇄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우리가 내적으로 수련하여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느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 삶 속에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 찬미 받으소서’에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권위의식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섬기려고 왔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험난함이 내 삶의 거름이 되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지금은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질과 자본은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물질과 자본으로 쌓은 탑은 제2의 바벨탑이 되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샘이 깊은 물과 같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시기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살이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거침없는 사랑에 감격의 화답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순시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과 일치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님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거듭나는 은혜로운 시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학살을 멈추세요!”



한 소녀가 3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평화의 깃발을 들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림을 들고 서 있다. 교황은 이날 폭력을 지지하는 일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 누구도 주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쓰거나 정당화시키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3월 13일 삼종기도를 주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학살을 멈추세요!”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이날 최근 2주 동안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을 주목했다. 마리우폴은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마리아의 도시’라는 뜻이다. 교황은 이 도시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가슴 찢어지는 전쟁으로 순교자의 도시가 됐다”면서 “이 도시가 공동묘지가 되기 전에 즉각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교황은 “아픈 마음으로 전쟁의 종식을 바라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한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공습과 공격을 멈추라”고 덧붙였다.

성소국 주최 알링턴 교구 여름캠프

알링턴 교구 성소국 주최로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생활과 기도하는 법을 경험하게 하는 4박 5일 여름캠프에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위한

Quo Vadis SUMMER CAMP

July 10-14, 2022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FIAT SUMMER CAMP

July 17-21, 2022

장소

Mount St. Mary's University and Seminary, Maryland
16300 Old Emmitsburg Rd, Emmitsburg, MD 21727

-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 신청 기간 : 3월 한달 동안
- 참가자 등록 마감 : May 9 (캠프 참가자로 당첨된 학생)
- 참가비 : \$250 (성소후원회 전액 장학금 지급)
- 문의 : 김만식 재권 요셉 (703) 403-1185

Sign up for the **Quo Vadis** and **FIAT Camp Registration Lotteries**

신청하기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camp-lottery/>

1 십자가의 길과 미사 (5:30 AM)

-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수난 여정에 함께 하며 기도과 자선과 희생의 삶을 기도합니다.

2 The Light is ON for You

- 사순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8시까지 성체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교구내 모든 본당에서 같은 시간에 실시됩니다.

The Light is ON for You
<https://thelightison.org/>



3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알링턴 교구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BLA 약정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4 부활 판공성사 안내

- 일시 : 3월 22일(화) 오후 3시 - 5시, 7시(미사) - 9시
- 성사표는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발송되었습니다. 받지 못하셨거나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꼭 사무실에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판공성사를 위해 동중부 신부님들께서 오십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부활을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5 사순 특강 안내

- 일시 : 3월 27일(일) 오후 12:30 - 14:30 (친교실)
- 강사 : 이상훈 요한사도 신부님(LA 라파엘 성당 주임)
- 주제 : 가장 하느님다운신 하느님 / 예루살렘의 예수

6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3월 20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 (B-3,4)

7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3월 20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 (A-1,2,3,4)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3월 20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9 꾸르실로 제347차 울뜨레아

- 일시 : 3월 25일(금) 오후 8:15 (A-1,2)

10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월 26일(토) 오후 4시
- 대상 : 행동 단원, 협조 단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1 루카회 월례회의

- 일시 : 3월 27일(일) 오전 11:40 (B-1)

12 묘지 구입(20% 할인) 및 정리

- 일시 : 4월 2일(토) 오전 11시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 문의 : 홍의훈(요셉) 연령회장 (703) 966-8206

13 성모회원 모집

- 성모회에서 봉사해 주실 신자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 수산나 성모회장 (703) 547-7703 주임신부님

14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Help UKRAINE

- 알링턴 교구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Catholic Relief Services
<https://www.crs.org/>

Caritas International
<https://www.caritas.org/>

Catholic News Service
<https://www.catholicnews.com/update-where-to-give-to-help-ukraine/>



16 성당 입구 도로(Rippling Pond) 서행 운전

- 성당앞 Rippling Pond 도로에서 15마일로 서행해 주세요. 특히 새벽미사에 오실 때 조심해 주시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동해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2차 현금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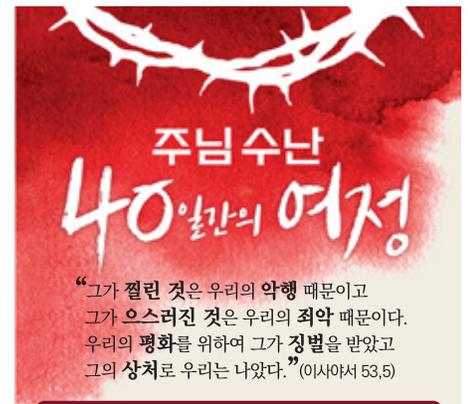
알링턴 교구 여름캠프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참가 신청 : 본당 웹포에서 확인하세요



3월부터 모임 재개

3월부터 모든 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단, 당분간 미사와 모든 모임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스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야서 53,5)

3월 3일(목) - 4월 13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미 미사 오후 8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3월 13일(사순 제2주일)

주일헌금	\$ 5,097.06
교구금	\$ 5,480.00
교구금(신용카드)	\$ 2,450.00
2차 현금	\$ 8,482.00 (동해안 산불 화재민 돕기)
감사 현금	\$ 140.00
온라인 봉헌	\$ 2,570.00
합계	\$ 24,219.06

♥ 주일헌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3월 24일(목) 오후 5:00-6:00
- 3월 25일(금) 저녁 8:00-9:00
- 3월 27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3)
 -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은신처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